

'다시 오월로...' 목판에 각인된 '그날'의 상흔

2024 광주시립미술관 '오월에술 2024 : 목판화 새겨 짠 시대정신'展...내달 19일까지

시대정신 투영된 민중미술 산물...동시대적 삶 공유 역사적 숭고함·가치 담아낸 목판화 소장품 75점 전시

목판화는 판화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녔다. 목판의 목재, 새기는 조각칼의 종류에 따라 거칠고 강한 형태를 만들거나 섬세하고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어 여러 번 찍어낼 수 있다. 또 목판화는 민중미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형태를 반복 제작해 알릴 수 있어 적극적으로 쓰였다.

특히 민중미술에서 목판화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접하기 쉬운 자연소재인 '목판'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과 사회에 대한 제언,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민족의식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발언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다음달 19일까지 2024년 미술관 소장품 연구, 활용을 목적으로 '오월에술 2024 : 목판화 새겨 짠 시대정신'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목판화 작품 75점을 선별해 소개한다.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창작단, 김봉준·김억·김진수·안한수·이상호·이준석·전정호·조진호·홍선웅·홍성담·홍성민 등 총 1개 미술단체와 11명 작가가 참여한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민중미술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중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23년 기준 500여 점의 목판화를 소장 중이다. 특히 목판화 소장품들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특성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홍성민작 '민족'

미술관은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 역사의식이 투영된 민중미술 작업을 다수 수집했기에 이번 전시를 통해 그 성과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술로 표현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현장과 동시대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발언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형상을 새기다 1: 그날'은 민중미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5·18민주화운동 소재 작품들로 구성됐다. 오월 그날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통해 역사적 숭고함과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햇불시위' 등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가 5·18 당시 있었던 일들을 사건별로 제작한 20여점 연작 중 일부를 선보인다.

두 번째로 '형상을 새기다 2: 삶'에서는 급격한 경제 발전을 겪은 한국 사회의 현실 문제에 대한 발언을 다



사진 위로부터 시계방향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창작단 '햇불시위', 이준석작 '금희의 오월', 김봉준작 '오월의 통곡', 홍성담작 '오월-02-햇불행진'



룬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농촌과 도시, 노동자, 환경과, 역사와 민족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목판화 작품을 소개하는 데 의미를 지닌다. 폭풍우 속 배를 끌어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안한수의 '태풍대비', 전통 수목의 새로운 해석에서 비롯된 대나무 형상으로 우리 사회 현상을 풀

어낸 홍성민 작가의 '민족' 등 작품을 소개한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한국 현대사의 진통을 보여주는 목판화를 통해 역사적 가치와 고유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며 "작품을 통해 오월 광주를 느끼고 동시에 목판화만이 주는 미감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광주문인협회, '2024 봄 문학기행' 성료

백제 사적지 부여 탐방

광주문인협회(회장 이근모) 회원들이 지난 27일 옛 백제 땅 부여에서 '봄 문학기행'을 가졌다.

이번 문학기행에는 시·소설·수필·아동문학·평론 등 다양한 장르의 문인 180여명이 참여해 신록이 짙어가는 늦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사진)

문인들은 백제 사적지와 신동업 문학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깊게 호흡했다.



특히 부여는 공주와 함께 백제 문화의 흔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부여박물관·부소산·고관사·백

마강으로 이어지는 답사코스는 백제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한 서린 땅의 애환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게 회원들의 이야기다.

사적지를 살펴본 어느 시인은 "화려한 예술문화를 꽃피웠던 백제가 멸망한 것이 스러져가는 봄날처럼 서럽다"고 감회를 드러냈다.

이어 회원들은 '깎뎠기는 가라'고 외친 4월 혁명 시인 신동업의 생가와 문학관을 찾아 부조리한 시대에 맞선 신 시인의 삶을 주제로 다양한 담론을 펼치며 문학정신을 고양했다. /최명진기자

도립미술관 2024 상반기 소장작품 구입 공모

내달 8-20일 우편접수

전남도립미술관은 한국 근현대미술 교류와 전남미술사에 대한 연구기반을 다지고 미술관 정체성에 기반한 작품 수집을 위해 '2024 상반기 소장작품 구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 작품 ▲전남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품 ▲전남 역사·지리·자연·문화적 특징을 소재로 한 작품을 수집한다.

미술관은 공모 절차로 수집된 우수한 작품들을 통해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고 교육 및 프

로그램 등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작가, 화랑, 법인 관련자 등 작품 소장자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신청자는 1점, 화랑·법인인 최대 2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작품수집추천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2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구입 여부와 가격을 결정해 선정되며, 최종 선정 작품은 6월 중 발표된다.

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20일까지이며, 등기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및 미술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가 답이다

영무에다음

현재 사전 청약 접수중 (특별혜택)

최고의 가치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에다음 더 퍼스트

페이스톤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달빛내륙철도 호재



TYPE 82A | 84B | 84C

문의 전화 1533-8321

HILLSTATE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로얄층 마감임박

1,466세대 (구)33평형, 43평형 | 계약금 5%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선착순 동 호지정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대표 전화 1533-8316